

따르면 정관개정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자신의 선거부정
 [상이 찬성해야만 을 누기리하려는 채라" 이리면서 가렵히
 은 43명으로 알려 반 6/7/00 (4) **이규영**
 이 찬성해야한다. (자)

징용한인 거주대법에 손해배상소송 제기

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에 강제징용 또는 징병됐던 한국인들이 일본법원 대신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지난 91년 최초로 일본을 상대로 동경지법에 소장을 접수시켰던 대일민족 소송단의 이수경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에서 소송을 담당할 신해원, 데이빗 마킵, 배리 피셔 변호사등 현지 변호인단과 6일 소송과 관련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362명의 한국인 피해자들이 일본제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

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 현재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라며 "이들중 270여명과 나머지 990여명등 총 1,200여명이 캘리포니아 내에서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소송제기 이유는 ▲2차대전중 강제노역을 했던 피해자들의 소송시효가 2010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특별법이 통과됐고 ▲나치 피해자들이 독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피해보상을 받은 선례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소송의 피고명단에는 미쓰시와 미쓰이등 대기업과 운송회사, 은행등 약 10여개의 일본기업이 들어있다.

〈구성훈 기자〉

금호리조트

재미교포 V.I.P. 특별회원모집

특급시설/특급대우/특급서비스

-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26만 마일 무료제공
- 3년후 가입당시 원화금액 전액환불(1구좌 1만불)
- 한국내 5개골프장 및 8개리조트 회원대우(가족포함)

· 호텔특별우대 제공, 한자민요/민속공연

가입문의 213-388-7123

◀ 금호그룹 금호개발 산 아시아나항공